

# 人生과 人格

박 종 현

(한국통신기술(주) 감사)

소 눈섭에 붙어사는 微物인 「소맹」은 소가 눈을 한번 깜박이는 순간이 한평생(一生)이고 人間의 한평생은 南柯一夢이라고 간파한 바 있다. 우리가 헤아리는 無量( $10^{72}$ ) 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초맹의 한평생은 겨우 0.15抄에도 못 미치고 인간도 길어야 100년이니 數値상으로는 微物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한다. 초맹에 비하여 조금 길다고 위안을 하겠지만 우스운 것은 초맹, 하루살이, 인간 등 生命을 갖춘 모든 物體가 生老病死라는 자연의 원리에 따르며, 살아있는 동안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저주한다고 한다. 사람들은 초맹을 보고 소가 눈을 한번 깜박이는 순간이 무슨 한평생 이냐고 시답잖아 하며 그 사이를 참지 못해 욕망·미움·사랑·즐거움·슬픔·노여움을 갖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고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초맹도 인간의 일생이 찰나에 불과한 주제에 스스로 이

세상에 머무는 한평생이 길다고 여기거나 말거나 착각은 자유이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큰소리로 웃는 단다.

하지만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만은 아니지 않은가? 인간에게는 인간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말이다. 우리의 인생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. 그리하여 古來로 우리 조상들은 物質보다도 人格을 重視하여 삶의 質을 人格에 두고 이를 聖人, 賢人, 仁者, 大人, 君子, 成人, 善人, 中行, 狂者, 見者, 知者, 有恒者, 野人, 小人, 鄙夫, 鄉愿 등 16 등급으로 구분하여 尊敬의 깊이를 달리하지 않았던가.

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쯤 조용히 회상해 보자. 나의 인격은 과연 어디쯤 있을까? 精神文化를 망각하고 오직 物質文化에 사로잡힌 오늘의 이 모든 世態가 바로 나의 責任이 아닐까.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後孫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? 스스로 가슴을 애이는 죄책감이 앞을 가린다.